



<제40회 코리아포럼(전문가좌담회) 녹취록>

▣ 한반도 위기 진단과 전망 ▣

일시: 2013년 9월 10일(화) 14:00~16:00 / 장소: 코리아연구원

- ▶ 사회: 정대진(남북상열지사 진행자)
- ▶ 토론: 김성옥(통일코리아 기자)
 - 박일수(연세대 통일학 박사과정 수료)
 - 이갑준(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최순미(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공동대표)
 - 탁용달(동국대 북한학과 박사과정)

● 주최: 코리아연구원, 오마이뉴스



※코리아연구원(이사장: 이재정 / 원장: 김연철)은 네트워크형 싱크탱크로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통합분야의 정책대안을 제시합니다. 회비 및 기부금은 공익성기부금으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생각네트워크, 코리아연구원의 회원 등록을 권합니다.

정대진(사회자, 남녀상열지사 팟캐스트 진행자): 이석기 의원 사태와 더불어 최근 2~3년 전 상황을 복기해보면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경색돼있다. 국내에서는 북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다. 6.25를 겪은 윗세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0대들 사이엔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반(反)북한 정서가 고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학, 통일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주변의 시선은 어떤가?

박일수(연세대) : 2004년에 학부를 법학으로 졸업하고 대학원 들어갔을 때 주변에 있던 선배들이 '년 인생의 블루션을 찾은 거다', '법과 북한을 연결하는 새로운 연구'라고 말했다. 그 때와 지금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다. 단적인 예로 오늘 좌담회 준비하려고 지하철에서 자료를 보면서 오는데 좀 긴장되더라. 제 옆에 있는 할아버지가 힐끔힐끔 보는 게 느껴졌다. 예전에는 '나 전공자야' 이런 느낌이었는데 최근에 이런 사태들이 있으면서 스스로 좀 위축된 느낌이 있었다. 보고 있는 자료 목차에 북한, 김정은 뭐 이런 것들이 쓰여 있으니.(웃음)

김성욱(통일코리아) : 입학할 때 부모님이 왜 그런 공부를 하냐고 했다. 나중에 졸업 후 취직하는 것 보고 '굶어 죽지는 않는구나'라고 말씀하시며 안심하시기도 했다. 남북관계 경색됐던 때 이명박 정부가 통일부 재정의 많은 부분을 북한 이탈 주민 쪽으로 돌렸다. 그때 생긴 일자리였다. 운 좋게 들어간 건데, 부모님이 안도를 하시긴 했지만 지금 석사과정 졸업한 후배들이 여전히 일자리 찾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보면서 안타깝다. 남북관계가 좀 풀려야 지원해 볼 곳들도 생기는데 지금은 NGO나 관련 기관이나 특별히 하는 사업이 없으니까 지원할 곳도 없다.

탁용달(동국대) : 지금의 사태가 그렇게 생소하지는 않다. 이석기 의원 사태나 주변 상황에 별로 개의치 않는 편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전에 전공자들이 '사람들이 북한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요즘은 모든 사안을 북한 문제와 연결시키는 추측성 보도도 많아서 우려스럽다. 이석기 의원 문제도 그렇고 소위 북한과 연결되면 일단 판을 끊으려는 정치 공학적 사고를 하는 상황이 좀 답답하다. 그렇다고 이석기 의원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대진 : 90년대 중반부터 계속 북한학을 공부했으니 지난 20년 동안 여러 상황을 겪으셨을 것 같다. 20년을 뒤돌아보면서 이석기 의원 사태와 같은 공안정국 상황에 대해 본인이 느끼는 경중은 어떤가?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이 사태를 예전과 비교해보면 어떤지?

탁용달 : 1999년 서해교전(1차 연평해전)이 발발했을 때 모 교수님이 '본인은 꽃게를 좋아하는데 가격이 오르게 됐다'는 걱정을 하더라. 그렇게 말한 것은 곧 DJ 정부 들어선 이후 남북관계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다는 반증이었다. 그 뒤로도 부침이 있었지만 북한이 남한 진보정권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 존중, 약간의 신뢰를 갖고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 신뢰관계 속에서 연구자들은 남북관계 개선의 희망을 갖고 있었다. 어려워도 돌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발생한 이후부터는 정부가 노골적으로 교류·협력 자체를 싫어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회담하는 양태, 방식, 언론 논조들이 굉장히 부정적이었다. 교류·협력 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이 싫다, 어차피 망할 정권인데 뭘 도와 주냐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들어가 있더라. 이런 상황적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반과 지금 상황은 근본적으로 다른 것 아닌가 싶다.

정대진 : 정권의 의지나 성향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것이 달라진다는 인식 같다.

이갑준(동국대) : 고등학교 때 한 선생님께서 분단과정부터 결과까지 객관적으로 말씀해주셨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은 17년 만에 처음이었다. 그 분이 민족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을 말씀해주셨다. 경제적인 측면은 남북관계가 진전된 이후의 국방비, 복지비용 같은 것들이었다. 그때 그 설명을 들으며 '아, 이게 단순한 민족 문제가 아니구나'

나. 우리나라가 더 잘 살려면 남북관계와 통일문제까지 가야 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행인 것은 남북관계가 지금까지 이뤄왔던 가장 큰 성과로 경제적 측면이 부각됐다는 점이다. 남북관계를 고민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정책대안을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해 '중복좌파'라는 인식에서 벗어나서 이 사람들이 정말로 남북경제, 특히 남북이 더 발전할 수 있는 측면을 바라보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생겨나고 우리도 그런 쪽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2~30대에게 남북관계는 민족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남북 경제협력,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는 '또 다른 직업의 세계'라는 측면에서 남북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중요하다라고 본다.

젊은 세대가 통일문제 자체에 무관심하다?

최순미(북한통일학대학원연구협의회) : 젊은 세대가 북한문제, 통일문제, 남북관계문제에 무관심한 것이 사회현상처럼 되어 있는 것 같다.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면 굳이 내가 관심 가지지 않아도 되는 문제, 이것이 직접적으로 내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 그랬을 때 통일 문제나 통일의 당위성 이야기를 꺼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통일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문제다. 그 친구들은 '지금 당장 내가 버는 월급 고지서를 내가 봐야 한다'고 말하곤 한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북한 인권문제, 북한의 지도자, 권력 실세 등등의 문제들이 전혀 중요한 일이 아닌 것이다.

올해 초 전쟁 위협성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을 때도 30대의 주요 관심사는 전쟁 여부가 아니라 주식이었다. 아니면 나의 경제적인 손해에 관련된 것이었다. 이러한 세대적 특성이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30대 이하 세대들의 인식을 만든 가장 큰 배경이라고 생각한다.

정대진 : 북한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인식이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그런 문제는 요즘에만 나오는 현상이었을까? 예전에도 북한 문제나 공공의 문제 등 특별히 자신이 연관되어 있지 않은 이슈들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박일수 : 지금은 관심을 안 가져서 문제인데 예전에는 오히려 북한, 통일과 같은 이런 단어들만 일종의 금기어였다. 북한을 연구한다고 하면 보통 국정원이나 국가 관련 기관에서 연구를 하지, 민간인이 북한을 연구하는 것은 굉장히 낮설었다. 특히 반공 세대에서 민간이 북한을 연구한다는 것을 이상하게 보는 것이 당연했다.

그런데 지난 DJ-노무현 시기를 거치면서 금기어가 일반어가 됐다. 그럼에도 무관심하다는 말이 나오는 것은 아직 상품화가 덜 된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재밌는 주제라면 사람들의 입에서 많이 오르내릴 텐데, 통일이라는 어젠다가 상품으로 나왔고 일반 시민들이 이야기할 거리가 됐는데 아직 제대로 된 상품화를 못 한 것이다. 오죽하면 남북관계에서 최고의 히트상품은 '퍼주기'라는 말이 있지 않나.(웃음) 그 이상을 넘어서는 무언가가 아직 나오지 못한 측면도 있다.

김성옥 : 좀 위험한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고 남북관계를 깊이 알게 되는 것 자체를 워싱턴이 싫어하시는 것 아닐까 싶은 생각도 든다. 사실관계를 조금만 알면 엄한 것에 중복 논리 씌우고 '좌빨'이야기하는 것이 얼토당토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걸 일반 대중들이 구분해버리기 시작하면 기득권층이 싫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들이 매번 써먹던 논리인데 만약 그렇게 모두 똑똑한 시민이 되면 그게 더 이상 안 먹히게 될 테니까.

김정은과 북한 체제

정대진 :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 남북관계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개성공단 공동위위원회 2차 회의를 진행하는 등 남북관계는 전반적으로 호전된 것 같다. 국내적으로는 이석기 사태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는 측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대화 국면으로 잠깐 넘어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최순미 : 북한을 공부하다 보니 북한 원문을 많이 보게 된다. 특히 북한 언론을 많이 보게 되는데 항상 비슷한 양상을 띠어 왔다. 심지어 진보정권이 들어섰을 때도 북한은 적대적으로 나왔다. 햇볕정책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북한이) 반감을 가졌었고. 이러한 남북 사이의 밀고 당기기는 어느 정권이든지 있었다. 이것이 좀 더 위험하게 느껴진 것은 지난 정권 때 아무런 남북관계가 없었고 게다가 북한의 무력적인 도발도 있었기 때문이다. 현 상황이 새롭다거나 김정은이라서 이렇게 했다 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감을 가지거나 적대적으로 나왔다가 다시 대화국면으로 돌아가는 것은 북한의 전술이다. 또 북한은 한국 정부가 원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정대진 : 북한이 구사하는 대외전략의 패턴이라는 해석인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보나?

박일수 : 다른 때보다 좀 세계 나오지 않았나 싶다. 정전협정 백지화, 비핵화 공동선언 폐기했고 판문점 연락 채널 차단했다. 실제로 국민들의 불안감도 컸던 것 같다. 북한의 군부가 장악해왔던 정치 엘리트 집단에서 내부 교체가 있었다고 하던데, 이런 과정에서 군부가 자신들의 이권 유지를 위해 좀 더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던 것 아닌가 싶다.

정대진 : 김정은이 저희랑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다. 그런데 같은 세대의 사람이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 김정은에 대한 생각, 혹은 후배나 주변에 비슷한 또래 분들이 갖는 김정은에 대한 인식은 어떤가?

탁용달 : 국책연구기관에 있는 모 박사가 김정은이 20대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0대의 특성인 자유스럽고 다혈질적이고 돌발적인 특성이 있어서 북한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을 했다. 그 때 저 사람이 저기 왜 있나 싶었다.(웃음) 물론 퍼스낼러티(personality, 성격)가 중요한데 그건 정치 과정 속에서 만들어어나가는 것이다. 또 정치적인 다이내믹스(dynamics, 강약)가 있을 때 중요한 것인데 그런 것이 거의 없는 북한에서 정치지도자의 성격이나 개인의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된다고는 보지 않는다. 김정은은 북한 시스템에서 만들어낸 인물이다. 인물론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나 싶다.

박일수 : 전 NBA 농구 선수인 로드먼을 초청한다든지, 이런 채널들을 활용하는 것은 퍼스낼러티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정 부분 개인적인 측면 때문에 가능한 것 아니었나 싶다.

최순미 : 김정은 체제 이후에 가장 최대의 수혜자가 로드먼 아닌가 싶다.(웃음) 이론상으로도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 지도자의 퍼스낼러티가 발휘되기는 쉽지 않다. 그런데 김정일 체제 때 김일성과는 다르게 문화적인 부분에 지대한 관심을 가졌듯이 김정은도 자신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정치적인 곳에서 발휘하지 못하는 독특한 생각들을 사회문화적인 측면에서 발휘하려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이갑준 : 북한 지도자의 나이나 젊음, 이런 것이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대외 환경이나 주변 국가가 중요할 것 같다. 김정은 자체만 본다면, 처음에 김정은 후계체제에서 김정은에 대한 많은 경력이나 이력이 나왔을 때 가장 흥미로운 것은 김정은이 사춘기 때 스위스에서 유학을 했다는 것이었다. 북한에서만 성장했던 김일성, 김정일보다는 그래도 스위스에서 유학한 경험이, 지금은 드러나지 않지만 2~3년 뒤에는 그때의 경험과 당시의

생각이 어느 정도 남북관계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 섞인 관측을 해본다.

북한이 붕괴될 것?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

정대진 : 김정은 체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측면에서 이전과는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 이걸 김정은 체제 안착의 자신감으로 보는 측면도 있고 아니면 코스프레 식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김정은 체제의 안착, 어떻게 평가하나? 앞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해 전망해 본다면?

탁용달 : 안착됐다고 본다.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거나 위협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희망이나 기우라고 본다. 이론적으로 말하자면 독재시스템이 붕괴하는 것은 내부부패 또는 외부효과인데, 실제로 외부효과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미국의 대(對)북한 고립이 60년이나 됐는데 북한은 여전히 버티고 있다. 내부적으로 시민사회 역량이 성숙했느냐는 문제도 의문이다. 또 김정은의 유고나 급변사태가 일어난다고 해도 북한이 붕괴할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그런 분석을 하는 데는 우리가 그만큼 저 체제를 잘 모르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굉장히 안정되었을 수 있고 체제붕괴의 중요한 요소인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효과가 발휘할 수 없는 구조가 현실인 것 같다.

이갑준 : 북한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사람들이 봤을 때 북한 체제를 불안하게 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붕괴하지 않은 것으로 봐도 (붕괴 문제는) 이미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김정은이 안정적인 모습을 갖춰가면서 경제 분야에 치중하고 있는 것 같다. 김정일이 국방 쪽에 매진을 했다면 김정은은 박봉주를 내각총리로 끌어올리면서 경제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박봉주는 2007년 총리 자리에서 숙청됐던 인물이다. 이런 인물을 내각총리로 끌어올렸다는 것 자체로 봐도 김정은 체제가 안정됐고 경제 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개성공단에서 연결고리를 놓지 않으려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도 경제 쪽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남북관계에서는 경제 쪽을 중시하면서 연결고리를 이어가려고 하기 때문에 대북정책, 남북관계에서 그런 인식을 하면서 조절해 나가야 하지 않나 싶다.

정대진 : 어제 9.9절 노동적위대 열병식 때도 내각총리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군 중심의 통치에서 당 중심의 정상적 국가로 가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여론에서는 북한이 불안하고 붕괴할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박일수 : 북한 붕괴 이야기는 그다음 시나리오가 있는 것 아닌가. 북한이 붕괴하면 우리가 흡수통일 한다는. 그런데 북한이 붕괴하더라도 우리 정부가 흡수통일을 한다는 것은 국제법상으로도 안 된다. 이를 지속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북한붕괴 이후 흡수통일 시나리오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국제법적으로 작동 되지 않는 매커니즘인데,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 이미 1991년에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가입을 하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도 국제사회에서는 국가성이 인정되고 있다. 유엔에 가입했기 때문에 북한이 붕괴되면 유엔이 들어가게 돼 있다. 우리가 직접 올라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간과하고 북한 붕괴론에 희망적인 사고를 걸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최순미 : 김일성이 죽었을 때 매우 강력하게 붕괴론을 주장했다. 근데 보란 듯이 김정일 체제가 등장했다. 그런데 로열티(충성심)는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많이 떨어졌다고 한다. 다른 국가들의 사례를 봐도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되는 기간이 평균 7~80년이라고 한다. 그렇게 따져봐도 김정은 체제를 봐서 안정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인데, 전문가 집단에서 보자면 일종의 트라우마가 있다. 김일성 사망했을 때 붕괴론 주장했다가 붕괴 안돼서 난처했던 사람들

많았다. 그래서 쉽게 붕괴론을 주장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다.

체제가 안정적인 것은 맞지만 경제 부문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난의 행군까지는 아닐지라도, 우리도 마찬가지로 예전처럼 보릿고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양극화 현상도 있지 않나. 북한도 그런 문제를 겪고 있고. 특히 화폐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휴대폰을 구입할 때도 유로나 달러를 내게 한다. 북한 돈 자체가 거의 통용이 되지 않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확실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나 싶다.

정대진 : 현재의 경제위기가 붕괴로 까지 이어질 만한 어려움인지에 대해서도 평가가 다를 수 있지 않나?

탁용달 : 일단 북한의 무역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무역량은 경제성장률을 구성하는 여러 지표 중 하나지 않나? 또 <데일리NK>나 여러 곳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보면 물가가 오르는 현상을 볼 수 있다. 여기에 대해 화폐를 엄정 찍어내서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역적 불균형, 유통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직 증거는 못 찾았지만 통화량 증발이라는 개념으로 현재의 북한 경제를 설명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여지가 있다. 실제 생산량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전제하에 북한에 들어가는 양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봤을 때 분배문제, 양극화 문제 인 것 같다. 쌀 생산량이나 고무생산량도 좀 늘었다. 경제는 좀 더 좋아진 것 아닌가 싶다.

중국, 북한을 버릴 수 있나

정대진 : 김정은 체제에 대한 내부적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외부적 이야기, 중국의 역할을 좀 짚어보자.

박일수 : 상반기 키리졸브 훈련 이후 북한이 계속 강공으로 나갔다. 그러다가 최룡해가 5월에 방중하면서 대화국면으로 전환됐다. 북한이 국면전환을 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비취진 측면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북한의 군사적 무력도발이 수위를 넘어간 것이다. 무력 도발 수위가 올라가니까 미국에서도 군사적 액션을 취하지 않았나?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명분으로 삼아서 미국이 MD 체제를 강화하는 군사적 액션들을 취했다.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국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봤을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동북아지역에서는, 특히 북핵문제나 무력도발이나 향후 6자 회담 등에 대해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중국이라는 생각이 든다.

정대진 : 북·중 관계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미·중 관계도 같이 봐야 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김성옥 : 중국, 미국 등 주변국을 같이 봐야 이해되는 부분들도 많다. 21세기가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 과정인데 그 맥락에서 동북아가 중요하다. 그러다보니까 한반도를 가운데에 두고 미·중이 으르렁거리는 상황인 것 같다. 그 맥락에서 보면 중국이 6자회담 하자고 굉장히 강하게 말했더니 오바마가 비핵화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미루려고 하고.

중국입장에서는 (북핵이)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북한을 그냥 내버려 두면 계속 핵 개발 할 것 아닌가. 북한 핵 위협이 세지면 미국은 한반도에 군사적인 조치들을 취하려 할 것이고 이러한 전체적인 맥락에서 중국이 느끼고 있는 압박감도 있을 것 같다. 그러다 보니 시리아 문제 때문에 정신없는 미국에 계속 6자회담 하자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 통과하고 예전과 다르게 중국이 동참하고, 북한과의 교역 등을 중단시켰다. 예전보다 중국이 좀 더 세계 나온 것이다. 이를 보면서 우리나라 언론들은 드디어 중국이 우리 편이 됐다며 기뻐했다. 그러나 중국이 북한을 버리거나, 조·중 동맹 자체를 끊어버릴 수는 없다. 언론들이 너무 순진하게 보는 것 아닌가 싶었다.

정대진 : 중국은 역내 영향력 유지, 자국의 전략적 이익 차원에서 북한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그래서 북한 체제 유지에도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는 평가로 보인다.

이갑준 : 남북관계에서는 1990년대까지 미국에 중심이 있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미국과 중국이 들어왔다. 중국이 G2로 불릴 정도이고 미국처럼 세계 경찰국가로 나아가려고 한다. 중국이 순망치한(唇亡齒寒 ;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밀접한 관계)인 북한을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고 미국 개입의 발판을 줄 수 있는 북한 핵을 용인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다고 또 북한이 사회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체제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해 본다면 중국의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확실한 것 같다.

유엔 대북 제재의 경우 중국이 제재에만 동참했지, 그 이후에는 북·중 교역이 더 증가했다. 2014년에는 신(新)압록강철교 완공 예정이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중국이 북한을 경제 제재를 통해 국제사회로 끌어내거나 고립시킬 수 있다는 접근은 맞지 않는다. 중국을 통해 북한을 6자회담으로 끌어내고 중국이 북한과 경제교류를 하는 만큼 우리 쪽에서 남북 교역을 선점해야 한다고 본다.

최순미 : 중국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수년 전만 해도 중국은 미국, 한국과 관계보다 북한에 훨씬 잘 맞춰왔다. 그런데 지금 중국이 가중치를 두는 부문이 경제인데, 북한과 교역을 통해 얻는 것보다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역이 더 중요해졌다. 중국이 실제로 이전보다 북한에 더 세계 나갈 수 있는 것도 북한의 행동에 대해 중국이 지지를 하느냐, 압박을 하느냐에 따라 주변국들과 교역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중국의 경제체제가 변화하면서 중국에 필요한 국가는 이제 북한만은 아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실례'프로세스 되지 않으려면

정대진 :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평가해보자. 이제 6개월 좀 넘었는데, 한때 이명박 정부의 최대 업적이 금강산 폐쇄고 박근혜 정부의 최대 업적이 개성공단 폐쇄가 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기도 했었다. 올해 상반기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남북 장관급회담의 격(格) 문제부터 신뢰프로세스까지, 어떤 부분에 문제가 있었나?

탁용달 : 격 문제는 남한 정부의 몽니였다고 본다. 격 문제가 국제적 기준, 관례라는 말도 안 되는 수사로 몽니를 부렸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회담하기 싫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 본다. 이번 정권 혹은 대북 컨트롤타워를 하는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의 안보실 라인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 격 논쟁으로 촉발된 것이라고 본다. 그들에게 '그렇게 북한과 대화하기 싫으냐' 라고 되묻고 싶다.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며칠 전 지인들과 술자리에서 '실례'프로세스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웃음) 남북관계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뭘 잘하고 있는지 실체가 없다. 일단 개성공단 단했다. 7번 회담했지만 당장 재가동하는 것도 아니다. 북핵문제도 해결 안 됐다. 8.15 경축사에서 박 대통령은 비핵화해야 신뢰프로세스 가동될 수 있다는 조건을 달기도 했다.

박 정부의 대북정책 지지율이 높다고 하는데 남북관계 별로 안해서 65~70% 지지율 나온 것이라고 본다. 뭔가 사업을 하면 반드시 지지율 까먹을 정부가 이 정부인데, 전략이 뭔지 모르겠다. 정말 통일을 원하는 것인지. 이럴 거면 개헌논의 할 때 한반도 평화통일 조항을 빼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싶을 정도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같은 경우 6차에서 북한이 거의 다 포기하고 나왔음에도 7차까지 끌고 가서 항복 선언까지 받아내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개성공단도 하루라도 빨리 가동해야 여러 문제가 해결 될텐데 그것도 위원회에서 피해액

을 산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으니, 이 정부가 개성공단 정상화에 의지가 있는지, 남북관계 정상화의 의지, 실체가 있는지 싶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실례' 프로세스 아닌가 싶다.

정대진 :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지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북한이 항복한 듯한 모습에 국민들이 시원하게 느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지지를 받을 만한 알맹이가 있던 것인지?

김성옥 : 이명박 효과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전 정부에서 뭔가 평가를 할 만한 대북 정책이 없었다. 그런 세월을 5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잘하고 있다고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지 않았다.

실제로 정부가 북한과 대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진행되는 추이를 보면 회담에 나오라고 해놓고 하루 주고 결정하라고 통보한다든지. 북한이 대화 의지가 있었음에도 중간에 구실을 만들어서 안 하려고 하는 느낌도 받았다.

그런데 8월7일, 경협보험금 지급한다고 했을 때 북한에서 대화제의하고, 이걸 통일부가 받아들이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그걸 보면서 이런 표현 좀 죄송하지만 얻어걸린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었다. 북한이 그렇게 말했는데 싫다고 하면 개성공단 문 닫은 책임이, 물론 북한에도 있지만, 남한에 넘어오지 않나. 그랬을 때 감당이 안 되는 것까지 계산해서 수락한 것 같다. 정책적으로 철학을 갖고 쪽 이어왔다는 것보다 상황에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 주도적으로 우리 정부가 대북 정책을 했다고보다는 상황에 대응하는 측면만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쉬움이 크다

최순미 : 한편으로 박근혜 정부가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매우 좋다는 생각이 든다. 박근혜 정부의 장점은 대통령 개인의 경험으로 보자면 계속 정치권에서 자라났으니까 이러한 원리들이 눈에 잘 보이는 것이다. 격 논쟁 이후에 이것을 잘했다고 보는 국민이 70% 이상이었다. 근데 사실 제대로 보면 보수 쪽에서만 그랬고 진보 쪽에서는 반반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잘한 것은 언론이 어떻게 기사를 내고 어떻게 입장 표명을 했을 때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대북정책에서는 긍정적이지 않은 것 같다. 뚜렷한 대북정책이 없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 일텐데. 박근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는 커뮤니케이션이 원천이다. 대북전략이 뚜렷한 것은 아니다. 포장을 잘했다.

탁용달 : 일단 미디어 환경이 기본적으로 좋다. 실제로 모든 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52%+α 이다. 대선 때 박 대통령을 지지했던 52%는 박 대통령이 될 해도 좋아한다. 그게 지난 대선에 우리 사회가 이념적, 세대적으로 갈라진 양상이다. 그런데 67%가 지지한다고 가정해보면, 예를 들면 문재인 지지자의 10% 정도가 빠져나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만약에 정말 많이 지지한다면 지지도가 90%가 넘어야 한다. 계산이 틀렸다.

박일수 : 최근에 통일부에서 신뢰프로세스의 내용을 구체화해서 자료로 만들었다. 눈에 띄었던 것이 정치·군사적 신뢰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였다. 나름의 고민이 있었던 것 같다. DJ-노무현 정부 때 정경분리를 통해 남북관계에서 경제적 분야가 진전되면 정치·군사적 부분까지 과급될 것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였다. 그런데 10년 동안 해본 결과 경제적으로 개성공단 열고 금강산 관광 하더라도 정치·군사적인 부분은 진전이 안됐고 신뢰가 생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문제점을 신뢰프로세스가 지적하는 것 같다.

그동안 우리가 선이후난(先易後難), 그러니까 비교적 쉬운 것인 경제적 협력부터 먼저 시작해서 신뢰가 형성되면 어려운 것을 풀겠다는 정책을 폈는데 신뢰프로세스는 이것과 반대로 선난후이(先難後易)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본다.

어려운 것을 푸는 것이 어렵게만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한 통 안에 큰 돌, 중간 돌, 모래를 채울 때 어떤 것을 먼저 넣어야 할지 생각해보면 큰 돌부터 넣고 중간 돌을 넣고 마지막에 모래를 넣어야 채울 수 있다.

물론 이 정부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다면 다행이다.(웃음) 실제로 그런 의도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려운 문제를 먼저 풀기는 굉장히 힘든데, 일반적인 관례를 깨고 선난후이를 취했다. 얼마 전 군 통신선 재개한 것처럼 남북관계의 큰 바탕에 좋은 전제조건들을 만들어 나간다면 오히려 그 위에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도 잘 돌아갈 수 있다고 본다.

탁용달 : 그래서 안 된다는 것이다.(웃음) 의지가 없다.

이갑준 :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가장 큰 수혜자가 박근혜 대통령 아닌가 싶다.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을 통해 통일정책의 어느 정도 설계를 그리지 않았나? 이명박 정부와 다르게 단계적인 정책을 그렸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 정부와는 다른 남북관계의 사고가 있다는 것이다.

출범한 지 이제 6개월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더 기대할 것이 많다. 남북관계가 지금보다 활성화됐을 때도 초기에는 꼬인 적도 있다. 6개월 지났는데 이럴 때일수록 남북관계 진전을 바라는 사람들이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폈을 때 일단 보수 세력들의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굉장한 장점이다. 또 10년 동안 남북관계 활성화되면서 쌓여진 데이터도 있고 잠재력도 있다. 이것들이 폭발할 수 있을 때가 지금이다. 이때 진보세력도 정부를 서슴없이 도와줘서 남북관계가 2년 안에 뭔가 이뤄진 다음에 그 후에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을 평가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다. 그러려면 예전 정부에 참여했던 분들의 조언을 박근혜 정부가 좀 끌어들이야 한다.

현재 대화국면 잘 이어가야

정대진 : 현재 남북관계에 개성공단, 금강산, 이산가족 상봉 등 여러 현안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이 기대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우려가 있긴 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으로 보나?

탁용달 : 남북 간 화해나 관계개선의 여지는 충분히 존재하고 불씨는 살아있다고 본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까지 종북논쟁이 이어지면 남북관계 나빠질 수 있다. 이석기 의원 사태와 관련해 한쪽에서는 구속시키고 한쪽에서는 개성공단 재가동에 합의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한국사회의 모순을 잘 보여주는 것 같다. 올 연말과 내년 초까지 박근혜 정부가 현재 남아있는 남북관계의 불씨를 살려낼 수 있느냐의 여부가 중요하다.

박일수 : 대통령 되기 전에 북한의 최고 지도자를 만난 경험이 있던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이다. 본인이 직접 경험을 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벼랑 끝 협상에서 개성공단이 재가동된 측면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한다.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도 안 받겠다고 하지는 않은 상태고, 물론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과 금강산 관광 연계하지 않을 것이고 회담 일자도 10월로 미뤄두긴 했지만 금강산 관광 재개를 완전히 버리진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대화 국면이 잘 이어져갔으면 좋겠다.

정권 초기에 지금처럼 남북관계에 포커스가 집중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DJ 정부 때도 많은 성과를 냈지만 IMF 때문에 정권 후반에 넘어와서야 남북관계 문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남북관계 문제가 너무 후퇴됐던 지난 정권의 역효과가 있어서, 국내 정치적인 요인과는 별개로 지금이 오히려 적기인 것 같다. 박근혜 정권에서는 후반기로 넘어 갈수록 추진력이 떨어질 것 같고, 지금 북한도 대화국면에 나선 상황이라 우리가 이 시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다.

최순미 : 팟캐스트 방송을 하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문제를 많이 다뤘었다. 박근혜 정부가 원하는 것은 현상 유지일 것 같다. 우리 입장에서야 남북관계를 정책순위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문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더 그렇게 느끼겠지만. 어쨌든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의 방향성도 결코 긍정적이지 않을 것 같다.

다만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적어도 이 문제를 정치에는 이용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어느 정권이나 통일을 당장 자신의 임기 때 하겠다고 바라는 정권은 없을 것이다. 남북관계뿐만 아니라 북한의 상황개선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는 말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김성옥 : 일단 북한과 대화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반갑다. 만나서 싸우더라도 어쨌든 자꾸 만나서 접촉하는 과정에서 관계의 발전이 있을 거라고 본다. 문제는 현재 상황을 모두가 다 반가워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를 지지했던 분들이 남북대화나 협상, 경제교류에 대해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북한 붕괴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반갑지 않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 입장에서도 잘돼도 문제고 안 돼도 문제일 것 같다. 이런 박근혜 지지 세력들을 어떻게 설득하고 갈 것인가가 지금 정부의 과제라고 본다.

지금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문제, 이산가족 상봉 등의 문제를 대화로 풀고 있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것들을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서 말한 것처럼 대화를 통해 신뢰를 쌓아가고 결국엔 북핵 폐기까지 가겠다는 목적으로 어떻게 잘 끌고 갈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으로 본다.

이갑준 : 남북문제는 민족과 경제가 같이 움직이는 현실적인 문제로 떠올랐다. 전에는 감성에 호소했다면 이제는 감성과 이성애 동시에 움직일 때다. 지금 남북관계의 중심은 현대아산, 금강산, 개성, 남북경협이다. 현대 아산 CEO, 개성공단 사업자들을 '중북'으로 분류시킬 수 있나?(웃음)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도 거기에서 자유로운 남북관계에 다다랐다.

일단, 북한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정대진 : 우리 사회의 건강한 통일 논의 저변을 확산시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보나?

박일수 : 시민사회에서의 통일 논의가 더 재밌어야 한다고 본다. 남북관계가 발전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상상력은 이미 충분히 자극되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어 철도를 타고 시베리아 거쳐 유럽을 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도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나.

최근에 <남북상열지사>라는 팟캐스트를 하고 있는데(☎바로가기) 시작하게 된 계기는 간단하다. 주변에 있는 가족들 또는 친구들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야기해보면 남북관계 이야기가 접근하기 힘들고 이념 논쟁에 끌려다니기 싫다는 이유였다. 그래서 남북관계에 대해 좀 재미있고 일반인의 눈높이에서 말해보자는 취지로 시작하게 됐다. 남북관계에 대해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적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서 통일이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지지와 참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통일 담론은 '왼발잡이'라고 표현하고 싶다. 그동안 통일에 대한 지적인 자극들, 정책적인 실현들을 통해 상상력의 지평을 넓혀줬는데, 자꾸 왼발만 앞으로 나가면 가랑이가 찢어지지 않나? 이것이 남남갈등이라고 보는데 이제는 오른발이 움직여줘서 양발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최순미 : 항상 하는 기도가 있다. 진보·보수의 구분이 아닌 선과 악의 구별만 하는 구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크리스천이 되길 꿈꾼다는 것이다. 전공을 북한학으로 결정하고 나서부터 항상 받아왔던 압박은 '너의 정치성향은 무엇이

나'는 질문이었다. 남북관계가 정치 성향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어느 곳이나 정치적 성향은 있을 수 있고 있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내가 남북관계 문제를 바라볼 때, 특히 젊은 세대가 남북관계 문제를 바라볼 때 스스로 사유하고 팩트도 좀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좀 가진 후에 주장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가장 우선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욱 : 지금 30대를 포함해서 다 같이 겪는 문제가 갈수록 먹고 살기 힘들어진다는 것 아닌가? 경기침체의 가장 좋은 타개책 중 하나가 남북교류인 것 같다. 근데 이것이 왜 그런지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없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 그 부분에 대한 논의의 확산이 더 필요하다고 본다.

통일이 가깝다고 보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세대, 특히 30대 이하의 젊은 세대들이 통일 세대가 될 수밖에 없다. 통일 세대들이 통일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젊은 사람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가 있다. 그 때 저는 상대방을 더 알아가자고 이야기한다. 앞으로 같이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데, 서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접촉했을 때 벌어질 문제들을 미연에 방지하고, 싸우거나 실수하지 않게 가기 위함이다.

그런 이야기 할 때마다 살짝 불안하긴 하다. 북한을 알아가자, 혹은 북한 사람을 알아가자는 말 자체가 지금 분위기에서 좀 무서운 이야기가 되는 상황이라서(웃음). 국정원 사찰당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좀 있다. (웃음)이것도 저희 과제가 아닐까 싶다. 이걸 극복하고 계속해서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이갑준 : 예전에 지리산에서 빨치산 토벌대와 무장공비였던 사람들이 50년 만에 만나서 악수하는 행사가 있었다. 굉장히 감동했다. 그분들이 화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한번은 통일교육 참여하면서 비무장지대(DMZ) 견학 갔다 와서 소감문을 쓰는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다. 거기서 한 학생이 쓴 글을 읽어보니 "결론적으로 우리를 지켜준 그분들에게 감사한다. 우리가 그분들에게 보답하는 것은 계속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지켜준 대한민국을 더욱 발전시켜서 남북의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썼다. 이게 보수인가 진보인가?

이러한 갈등을 넘어서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가장 희망을 걸 수 있는 세대는 바로 젊은 세대들이다. 그 세대들에게 객관적인 통일교육과 평화교육을 해야 하지 않나. 남북관계 악화된 것은 우리가 풀고, 이를 발전시키는 것은 10대들이 준비할 수 있게 우리가 여건을 만들어야 하지 않나 싶다.

더불어 남북 두 지도자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 있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다. 남북 이산가족들이 60년 동안 몇 번 만나지도 못하고 있다. 두 지도자는 무엇보다 이제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두 지도자야말로 가족의 그리움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고 본다. 부모의 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이다 누구보다. 그분들이 이산가족 상봉에는 정치적 이성보다 이런 감정을 더 발휘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탁용달 : 다른 분들은 밝은 전망을 내놓으셨지만 현재는 좀 어둡다고 본다. 시민사회 진영이나 연구자들 보면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려고 한다. 기본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라고 생각한다. '종북'이 아니라 실제로 북한이라고 하는 내 몸의 한 부분 중 아픈 부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철학적 사유를 바탕에 뒀야 힘이 빠지지 않을 거라고 본다. 통일운동 오래 하셨던 선배분들도 많지만 가장 쉽지 않은 일인 거 같기도 하다. 스펙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물질적으로 도움도 안 되고(웃음). 아무런 도움도 안 되지만 실제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한다.

96년도에 모 선배가 그랬다. 통일이 돼서 뭘 할지를 고민하고 있으면 지금 분야에 있어서 통일 문제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가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북한 분야든 아니든, 예를 들어 은행원이라면 '통일되면 평양지점에 가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대중 속으로 파고들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관점들을 많이 녹여낼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본다.

정대진 : 겸손한 선구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나 싶다. 이석기 의원 사태 때문에 사람들이 진보에 대해 많이 실망했다고들 한다. 진보는 변화와 혁신을 전제로 해야 하는데 그 그룹이 이야기하는 것은 변화와 혁신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념과 주의만을 품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변화와 혁신의 시대에서 사람들이 남북관계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 있다. 연구하는 우리가 앞에서 이끌어 가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교조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선구자 역할로서 문제의식은 가지되 현실감각도 갖고 사람들과 호흡하면서 통일 기반을 만들어나가는 데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2013/9/10)